

**조직으로의 일심단결과 대중과 기층에 대한 강단진 사업으로
반외세자주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각계각층 여성민중과의 투쟁의 초석을 다져나가자.**

전여대협 4.5월 사업계획서

0. 들어가며

쫓쫓하게 느껴지던 새내기들이 조금씩 학원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학자투쟁이다 출범식이다 하며 바쁘게 사업과 투쟁을 일구어가다 보니 어느덧 개강이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개강을 하고 사업의 첫방향을 짚고 나니 이제는 하나 들씩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일꾼들의 손발이 더욱 바빠져야 할 것입니다. 1년의 투쟁을 바라볼 때 투쟁의 첫시작은 별거 아니지만은 이후의 투쟁을 좌우하는 중요한 첫발입니다. 3월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첫걸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며 올바른 방향을 향해 힘찬 투쟁의 자욱들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혹시 뒤쳐져 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며 서로 밀고 당겨주며 학우들에게 함께 하자 손내밀며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 갈 수 있도록 합시다.

1. 3월의 평가

성과적 지점에 대하여

대학별 투쟁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3.8여성의 날이나 각 학교출범식등 예전의 관성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단위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갔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8여성의 날에 예전에는 3.8여성의 날의 의미정도만을 알리는 형식적인 준비를 했던 단위들이 많았으나 청주대나 서원대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풀어나가기도 하고 안동대에서는 3.8을 전후로 하여 여성주간을 설정하여 새내기 사업의 박차를 가했던 성과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대에선 비디오상영등을 하기도 하고 부산대의 경우 연대단체의 행사에 자체 선전물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총여학생회 출범식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주한미군철거, 조국통일등의 여러 가지 선전거리와 함께 이에 맞는 대학우실천거리를 준비하거나 발언과 공연등의 형식적인 틀을 깨고 출범식기간에 선전의식화를 중심으로 학우들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동총여학생회를 구상하는 등의 창의적인 고민들을 진행하였으며 총여학생회 출범식때 서원대에서 21명의 새내기를 조직화하는 모범도 있었습니다. 충청여대협에서는 AMK여성노동자와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노동자와의 연대의 모범을 남기었습니다.

한계적 지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전여대협의 사업과 지침에 따라 전대오가 전일적인 흐름으로 투쟁이 풀어지지는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전의식화사업을 중점으로 둔 전여대협 3.4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단위마다 사업이 풀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단위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중심으로 풀어가는 투쟁의 편차가 있는 등 전일적인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는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보면

단위마다의 사람간의 문제가 크게 존재하면서 조직사상적인 단결이 저해되어 단위사업의 입안과 집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쟁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투쟁을 진행하려다 보니 단위에서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기간 진행된 사업을 상승 발전시켜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정세

3. 시기규정

(1) 소모임과 기층사업의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5월 시기에 드러서면 학교나 지역, 중앙의 투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러하므로 기층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정리화하여 단위의 투쟁역량을 강화해 들어가야 합니다. 단위의 편차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소모임사업이나 기층의 사업들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준비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존

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일년의 기층사업의 흐름을 잃어 버리고 중앙중심의 사업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머리만 큰 여학생회가 아닌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는 여학생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층단위와 소모임의 1년계획을 명확히 내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소모임과 기층사업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해 들어가야 합니다.

(2) 현재 단위의 현황을 돌아보고 단위를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각 학교 총여학생회를 보면 제대로 조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꾼들간의 나서는 문제나 일꾼들의 학생회사업의 경험이나 인식의 부족으로 단위의 조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꾼들이 통일단결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의 진행이 더디고 마음만 조급해지거나 서로가 불만만을 토로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살아왔는지 기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단위를 재정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3)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의 전일적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여대협건설정도가 지역마다의 차이로 인하여 기층단위로의 사업의 전일적인 흐름이 창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총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시기 지역여대협의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전여대협으로 일심단결된 단일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반외세투쟁을 가시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년초부터 두명의 여성이 미군에게 살해당해야 하는 민족의 아픈 현실에 답변이라도 하는 듯 각 계급계층의 반미투쟁이 붓물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400차 수요집회에 이어 2000년 학생전범법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투쟁의 전환적 시기를 고대하는 듯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일반미 투쟁을 본격화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투쟁을 반외세로 모아가야 할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반외세의 전면전의 첫시작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5) 각 계급계층과의 투쟁을 준비하고 공동의 투쟁체를 건설해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단체등 전국의 곳곳에서 각 계급계층의 여성민중들이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를 맺고 앞으로의 투쟁을 함께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가야 합니다. 또한 대책위와 전민특위의 상을 잡고 이러한 공동의 투쟁체를 건설하여 여성민중의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연대단위와 연대활동을 더욱 밀접히 하고 투쟁하는 여성민중을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함께 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4. 조직사상사업

0. 각 지역 대학의 상황

성과적 측면

3월 들어 개강하면서 개강사업과 투쟁들속에서 여학일꾼들이 자기 역할과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학별로 새내기 사업 및 소모임 사업에 대한 모범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계적 측면

지역여대협 지도력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학단위마다 사람의 문제가 크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학생회 자체가 조직사상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나서는 문제가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기층건설 지도 및 새내기 사업 각 영역별 투쟁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사업과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전일적이고 통일적이지 못합니다.

조직사업의 초석

- 여학생회의 조직생활을 본계도에 올려놓자.

1. 사람간의 문제를 잘 풀어내자

대부분 여학일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가장 큼니다.

사람들간의 문제라고 하면 우선 다양한 운동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업작품과 품성등의 차이로 인하여 일정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조직적인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일꾼들 개별개별 나서는 문제는 혁신과제를 제출하고 관찰하면서 풀어지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로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것이 일정 지속됨으로서 문제가 더욱 증폭되어가서 결국은 단위 여학생회 자체의 사업을 마비시킬정도로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그렇다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문제의 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해결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모든 것을 대표자 중심으로 조직에 총화하도록 합시다.

대부분 사람간의 불신과 반목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대표자에게 총화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주체총화란 무엇인가

회의시간은 기필코 엄수하자.

총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생활이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직생활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회의시간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냥 얼굴보면 되겠지 하는 소극적이고 느슨한 생각은 안됩니다. 회의시간을 어길 경우 철저한 비판과 혁신과제를 내웁시다.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무슨일이 있더라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회의에서 설혹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결정이 났더라도 회의과정에 충분히 자기의 입장과 견해를 피력한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관철해 들어가야 합니다.

사소한 의심이나 오해가 쌓여서 반목과 질시를 불러옵니다. 일꾼에게 불만이있거나 사업상에서나서는 고민이 있으면 꼭 회의시간이나 총화시간에 제기하여 의심을 풀도록 합시다.

동지애를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한 조직운동을 기획하자

꽃향기와 함께 전해주는 편지한장

동지들에게 편지쓰기

봄소풍을 기획하자

여학일꾼 결의대회

여학일꾼의 멋진 만남-1주일에 한번정도 함께하는 동지와의 개별담화의 시간을 갖자

2. 자기 준비 정도를 높이자

학습을 생활화 정례화 하자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세상돌아가는 사정을 잘알아야 운동이 보인다

정세학습

매일아침 내지는 종례시간에 그날 신문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통신총화와 검색을 주체를 선정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나오는 문서와 교양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자

위에것만 잘해도 학습의 절반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1회 집단 학습-목요일학습을 진행하자

목요일 내지는 단위별로 적당한 시간을 할라 정기적인 학습을 진행합시다. 학습내용은 여성학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개인학습

개인별 준비정도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웁시다. 무리하게 지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학습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지킬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처음에는 작은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봅시다.

학습을 잘하기 위한 방법

학습을 책임질 책임주체를 선정하자

대부분 사업과 투쟁일정에 바쁘다보니 학습일정은 거의 맨 나중에 진행되거나 정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를 선정하고 주체가 학습 준비와 제출에 주동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교육일꾼이나 없는 경우에는 단위에서 고학번이 학습에 대한 주체를 맡고 진행하여 합니다.

지도사업시에 지도사업하는 단위와 학습을 꼭 진행하자

지역여대협에서 먼저 학습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총여일꾼과 함께 학습하고 총여는 단여와 학습을 진행하는 식으로 위단위와 기층단위와의 학습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부분 학습교사가 부족하고 시간이 잘 나지 않으므로 지도사업을 하는 시기와 시간을 잘 설정한후 학습을 꼭 진행할 수있도록 합시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꼭 점검하자

대부분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의나 필요성은 느끼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저 결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학습 및 단위별 학습계획, 개인학습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학생회실 벽에 부착하여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학생회실 및 학우들과의 접촉공간을 혁명화하자

대부분의 대학 총여학생회실이나 여학생휴게실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열악합니다. 대부분 청소가 잘 안되어 있기도 하고 주계획이나 월별 기획은 몇 달전에 세운 것이 아직도 그냥 붙어있기가 일쑤입니다. 과연 이러한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을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회실 청소를 잘하자

공간에 격문 및 월별, 주별 계획을 써 붙이자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총여학생회실의 활용이 자칫하면 일꾼들의 휴게실이 되거나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사랑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배치와 공간사용수칙을 잘 정하고 학생회실 공간이용을 혁명적으로 진행하여 봅시다.

5. 대중투쟁과제

남한사회의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얽혀있고 이에 따른 여성억압의 형태또한 다양한 형식과 방도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이나 우리가 해야할 투쟁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전여대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쟁만 해도 영역별로 보았을 때 8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층에서 어떠한 투쟁의 과제를 중심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지 올해 각 투쟁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막연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의 투쟁의 상을 명확히 하고 시기마다의 정세흐름과 조성된 조건에 맞게 4,5월 집중적으로 투쟁해야 할 투쟁의 핵심과제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투쟁과제 이외의 투쟁또

한 농쳐서는 양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승전결이 있듯이 4월 눈에 보이는 투쟁으로 외화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투쟁흐름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흐름들을 조금씩 축성시켜 5월 투쟁을 가시화 시켜야 합니다.

올해 모든 투쟁이 반미반일 반외세투쟁으로 반정권투쟁으로 모아지는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세의 흐름에 맞게 4,5월은 반외세투쟁이 만들어지는 계기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월은 2000년 학생전범법 정으로 총화되는 반일-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투쟁과, 5월 5.18를 기점으로 한 한총련을 비롯한 각계민중들의 반미투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반외세투쟁을 가시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월 1일 노동자투쟁과 봄농활을 준비하면서 여성민중과의 연대의 끈을 만들어 들어가고 성폭력과 매매춘에 관련한 투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여성민중의 투쟁들을 형성해 들어가야 합니다.

반미투쟁

주한미군철거투쟁

올해 장기적인 투쟁의 전망을 그리면서 전민특위의 활동과 전여성민중공동의 반미투쟁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위해 4,5월은 이러한 전망속에서 기층단위에서부터 주한미군철거투쟁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학원내 주한미군철거투쟁은 의식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우들에 대한 선전의식화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식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또한 학우들을 의식화의 대상단이 아닌 투쟁을 직접일구어 나가는 주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학교에서부터 형성하여 단위의 반미투쟁역량을 축성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도로 용산미군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집회를 학내로 끄집어 내어 학교별 금요집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층단위나 골간단위 또는 동아리나 소모임등에서 낮은 수위로 시작하더라도 각 단위의 성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더 많은 학우들이 직접 투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우의식화의 방도로 여름방학때 진행될 기활대원의 모집을 위한 대중적인 기활학교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기활을 가지 않는 학우들까지도 기지촌의 문제와 주한미군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기활학교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학내 주미철 투쟁의 형성과 함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민특위의 활동방향에 맞추어 전민특위가 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학단위가 전민특위가 되어 주미철 투쟁을 일구어야 합니다. 5월에 농활을 준비하는 듯이 대중적으로 기지촌탐방단을 모집하여 기지촌지역을 직접가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기지촌탐방단을 통해 모아지는 대중적인 주미철투쟁의 폭과 수위를 전민특위의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학우들을 중심으로 한 기지촌탐방단이 반미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금씩 수위를 높이고 결속력과 활동력을 높여내어 전여대협 출범식과 전민특위 발족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학내에서 기지촌탐방단을 구성함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민중에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대단체에 학내금요집회를 한번정도는 연대단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지촌탐방을 여성단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4월에는 3월부터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학우의식화사업을 총체화하고 5월 반미투쟁-주한미군철거투쟁을 만들어 가지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5월에는 위의 투쟁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5월은 반미투쟁의 흐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학내외의 주한미군주둔 피해의 실상 및 미국이 이땅 여성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전면 의식화를 진행한다.

의식화내용

- 주한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
- 퇴폐향락문화와 군사주의 문화
- 주한미군주둔비를 줄여 모성비용 및 여성의 생계대책, 교육재정확보

구체적방도

- 주미철투쟁의 의식화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 각대학에 주한미군범죄사진판을 꼭 만들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대학별 화장실 선전물 및 신문등에 꼭 주미철에 대한 내용을 목적의식적으로 신자.

- 대학별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여론공개사업
- 반미조형물-바다그림 대형 성조기봉 왕프랑
- 금요집회 및 선전
- 대중적인 기활학교

(2) 대중적인 기지촌탐방단을 모집하자.

- 기지촌지역과 미군기지근방을 돌아보며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자.
- 금요일을 전후로 기지촌탐방기간을 설정하여 용산미군기지 앞 매주 금요일 12시에 진행되는 금요집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자.
- 기지촌탐방단이 학습을 진행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탐방의 효과를 백배로 높일 수 있도록 하자.
- 연대단체에 제안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3) 전민특위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전민특위는 학교나 지역의 역량상 따로이 꾸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나섭니다. 전여대협차원의 중앙조직을 건설하고 기층단위에서는 총여학생회가 학교별 전민특위가 되어 전민특위발족이후 전민특위의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위의 주미철 투쟁을 일구어 가도록 합시다.

4, 5월 주미철투쟁의 활동이 전민특위건설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활동상

- 여성에 대한 미군의 학살만행이 자행되는 거점-기지촌지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들과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정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 여름기활활동과 함께 기지촌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 여학단위에서 주동성을 발휘하여 학생대오의 전민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연대단체까지 전파하여 전민특위를 확대강화하자.

*위의 활동을 중심으로해서 시기별로 전민특위의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나가겠습니다.

방도

- 전민특위건설에 대한 일꾼들의 이해정도를 높인다.
- 각 연대단체를 방문하여 전민특위건설에 대한 제안을 한다.
- 여성운동단체들과의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공동실천과제를 만들어낸다.
- 이북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구체적인 공동사업과 투쟁을 모색한다.

(4) 미리부터 기활대원을 모집하여 준비된 기활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전여대협 차원의 기지촌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실질적인 기활은 여름방학때 진행되지만 기활대원이 학습되고 단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합시다.

(5) 실질적인 반미실천활동을 펼쳐내자.

지역별로 미군기지 항의방문투쟁 또는 미군기지가 없는 지역은 거점 선전전 미국을 반대하는 전여대협 다섯가지 국민행동-미국물건 쓰지 않기

성조기 밟고 다니기

미대사관 및 미대통령에게 항의 엽서 및 항의 메일 보내기

커피, 콜라 안마시기

성조기 다트판 만들기

(6) 계기와 조건을 살려서 투쟁하자.

반미의 날, 반미주간 및 미국의 국방장관 내한 등 정세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성된 반미투쟁의 사안과 계기에 투쟁내용을 꼭 잡아내자.

귀일투쟁

일본군위안부문제 완전해결투쟁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2000년 학생전범법정으로 총화될 수 있도록 4월에 집중적인 투쟁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기되었던 수요집회와 선전전을 학내에서 학생전범법정전에 꼭 한번정도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전범법정 참가단을 모집하여 참가단을 중심으로 수요집회를 만들어 가고 집회와 선전전을 통해서 참가단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전범법정때까지 투쟁흐름을 상승시켜나가야 이러한 흐름이 학생전범법정후에 학내에 안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전범법정참가단을 전범법정 소모임으로 전환시켜 하반기 여성분화제기간에 학내전범법정을 준비하고 학내일본군위안부투쟁을 주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이후 5월의 흐름은 시작한 수요집회를 법정이후에도 지속시키는 것과 남북해외 3자연대 서명운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범법정 소모임이 위의 투쟁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감과 동시에 학내전범법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전범법정 소모임은 지금당장 법정을 준비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선은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의 집방문등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아나가기 위한 활동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1) 전범법정때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한 선전과 2000년 학생전범법정에 관한 소개로 학내를 주름잡자.

의식화내용

- 2000년 학생전범법정의 소개와 국제전범법정의 소개
- 민족적인 문제에서부터 성적인 문제에 이르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
-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위안부'할머니에 대한 국민기금강요책동
- '위안부'문제 외면하는 정권의 사대매국성

구체적방도

- 수요집회와 수요선전전
- 기획선전거리 조성하기와 화장실선전물이나 유인물만들기
- 김학순할머니 지문초상작업
- 일본군'위안부'관련 사진전
- '위안부'할머니 초청강연

(2) 학생전범법정전 마지막 수요일인 4월 26일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하자.

4월 26일에는 기간 4월동안 진행된 의식화흐름과 수요집회와 수요선전전을 총화하고 학생전범법정으로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기점으로 모든대학에서 전국동시다발로 수요집회를 진행하도록 하자.

(3) 학생전범법정 참가단 조직화와 당일준비

- 학생전범법정 참가단을 대대적으로 조직화하자.
- 지역 연대단체에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화하자.
- 학생전범법정때 선전할 선전거리나 플랭카드를 준비하자.

* 2000년 학생전범법정세부 지침서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4) 전범법정 이후 지속적인 반일흐름을 창출할 대중행동전을 진행하자.

- 지속적인 수요집회와 수요선전전
- 남북해외의 3자연대 서명운동(작년에 이어 다시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여대협 출범식때 총화될 수 있도록 하자.)과 정권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엽서쓰기운동

(5) 전범법정 소모임 구성

2000년 학생전범법정 참가단을 중심으로 하반기 학교별로 진행되는 여성문화제행사때 학교별 전범법정을 준비할 수 있는 전범법정 소모임을 구성하자.

- 정대협 학습관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나 2000년 국제전범법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
-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할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 소모임을 중심으로 남북해외 3자연대 서명운동과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자.
- 학교별 전범법정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 학습이나 조사사업에 대한 지도를 통해 자기계획을 내올 수 있도록 하자.

여성민중생존권투쟁

여성노동자투쟁

여학우대증들에게 있어서 예비여성노동자이나 예비실업자인 여대생의 현황을 학교별로 조사하고 학우들에게 알려내면서 여대생이 처한 처지와 조건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사업과 의식화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여대생들이 예비여성노동자로서 노동지기활동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여성노동자와의 연대에 있어서 여성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사업장을 물색하고 이에대한지지, 지원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어 여성노동자와 여대생간의 끈끈한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작업들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 5월 1일 노동자투쟁에 여성노조와 연대를 시작한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화되고 여학생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여대생의 취업형태와 취업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

-전국여성노조산하의 노동지기 활동을 각 대학에서 실시

(2) 여성노조와의 연대사업고민

투쟁하는 여성노동사업장에지지, 지원투쟁(4월부터 사업장에 대한 물색작업이 들어가서 앞으로 연대할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 활동방도

5월 1일 노동자투쟁에 여성노조와 함께 진행

공동유인물 및 선전전(여성노조와 구체적인 공동행동을 준비하도록 함시다.)

여성농민투쟁

여성농민과의 연대의 시작인 봄농활이 있는 시기입니다. 봄농활 때 여성농민반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지만은 올해 4계절농활 때 여성농민반활동을 진행할 대원들을 미리 조직할 수 있도록 함시다. 대원과 주체를 미리 선정하여 주체가 바뀌지 않고 1년을 관통하여 농활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주체와 여성농민반대원들이 미리부터 봄농활을 준비하며 여성농민에 대한 학습과 올해 전여농에서 계획하는 여성농민들의 투쟁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농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써의 봄농활이 될 수 있도록 여성농민과의 친분을 쌓아가고 여성농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여성농민의 삶의 현실을 여성농민이 깨우쳐나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의식화 될 수 있도록 함시다.

여성농민반원들이 자기대중을 만들기 위한 우리엄마만들기를 진행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만나들어갈 수 있는 여성농민을 대원 개개인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봄농활 후속작업으로 대원들이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함시다.

여성농민분중에 여성농민축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체분을 물색하여 더욱 신경써서 챙길 수 있도록 함시다. 부녀회장님이나 마을에서 일명 '대빵'이라 할 수 있는 여성농민분들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함시다. 이 예비주체분을 통해 여름농활 때 여성농민분들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여농에서 제작하고 있는 '여성농민평등의식을 위한 수첩'을 여름농활전에 마을 여성농민분들에게 배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여성농민반원모집과 사전학습

- 시기마다 바뀌는 여성농민반 대원이 아닌 1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4월 중순경에 미리 조직화하자.
- 분반원만이 아니라 모든 농활대원들이 여성농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농활학교를 진행하자. (학교별 농활학교에 교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하자.)
- 여성농민반 대원이 현재 여성농민의 처지와 조건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자. (조속히 교양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나 군별 농학연추회의를 꼭 참석하자.

(2) 구체적 활동

- 여성농민과의 밀접한 만남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자.
- 한해의 첫농활인만큼 들어가는 여성농민들의 실사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여대협이나 도, 군단위 여농회에 꼭 총화하도록 하자.
- '우리엄마만들기'활동을 통해 각 분반원들이 책임질 여성농민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 주체가 될만한 우호적인 여성농민분을 물색하도록 하자.
- 일만하는 농활이 아닌 여성농민과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3) 후속작업

- 들어가는 마을의 실사파악내용을 지역이나 중앙으로 총화할 수 있도록 하자.
- 개개인이 책임지는 여성농민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
- 여름농활전인 6월경에 전여농에서 발행되는 수첩을 보내드리도록 하자.

가부장제척결투쟁

성폭력반대투쟁

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

작년 학교별로 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의 흐름을 이어 올해 더욱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선거와 겨울방학동안 투쟁의 흐름이 끊긴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학교측에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기에 앞서 학내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금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학내에 신고문화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선전의식화작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대중적인 간담회등을 통해서 학우들이 학내를 비롯한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폭력규제학칙을 더욱 학우들의 현실에 밀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칙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학칙의 제정이외에 학내의 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방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모아진 학우들의 요구들을 학교측에 요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5월 학교별 투쟁을 전여대협 출범식때 있을 전여대협 공동대책위발족때 총화되어 중앙으로 집중된 하나의 투쟁흐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와 함께 여학단위가 없는 학교단위에도 제안하고 주체를 세우고 다른 여학생운동단위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어 전여대협 공동대책위투리에 묶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학내와 그외의 성폭력의 문제를 알고 성폭력규제학칙제정으로 모아질 수 있는 의식흐름을 창출하자.

의식화내용

- 사회의 만연된 성폭력의 문제들과 그 원인
- 학내성폭력 설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내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다.
- 성폭력규제학칙의 필요성
- 여학생회로 성폭력 신고접수를 알리는 선전

구체적 방도

- 회장실 선전물이나 성폭력방지 기획 자보나 신문

- 설문조사나 성폭력에 관한 의견계진운동
- 성폭력문제의 접수와 상담을 알리는 스티커 선전
- 학우들을 의식화시킴과 동시에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 성폭력규제학칙제정을 위한 대학우 서명운동

(2) 기층실사이나 간담회

투쟁을 준비하면서 나서는 고민중에 하나가 학우들의 성폭력이나 성폭력학칙제정에 대한 고민이나 인식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사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기층의 실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합시다.

(3) 학교당국에 요구하는 투쟁

학내성폭력의 문제에 관한 것과 성폭력규제학칙제정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들을 수렴하여 학교당국에 공식요구안을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진행하여여 실질적인 성폭력규제학칙제(개)정 투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전여대협 공동대책위 구성으로 집단적인 힘을 모으자.

기간 4,5월동안 진행된 투쟁과 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전여대협출범식을 기점으로 학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여대협 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학내성폭력투쟁을 전일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고 교육부나 여성특위에 요구해 들어가는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창출해 들어가야 합니다. 여학단위가 없는 학교에서도 주체를 세워서 공동대책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여대협산하에 없는 다른 여학생운동단위와의 연계를 만들어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매춘

매매춘의 문제는 여성문제중에서도 냉대받고 고민되어지지 못하였던 문제였습니다. 매매춘의 문제가 여성민중의 삶에 더욱 가깝게 침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자체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일반민중들의 인식속에서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성년 매매춘행위는 반대하면서도 매매춘자체는 인정하는 사회인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매춘의 문제의 본질을 알고 인식을 바꾸는 활동에서부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의식화내용

- 매매춘문제의 본질
-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더 많은 여성의 질곡을 만들어내는 매매춘문제들-기지촌여성, 일본군'위안부', 기생관광, 원조교제등
- 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의식화방도

- 자보선전이나 화장실 유인물선전
- 학우들의 의식조사사업
- 매매춘에 대한 강연회나 관련 비디오 상영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방문

조국통일투쟁

남북해의 3자연대를 강화시키고 투쟁화하였던 작년의 성과를 이어 올해는 일년의 투쟁흐름을 합의하고 더욱 공고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층중심의 조국통일투쟁을 극복하고 기층에서부터의 흐름을 창출하여 합니다. 일반학우를 대상으로 자주교류의 흐름을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기층단위에서도 단위의 장기적인 조통투쟁의 흐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작년 경북대에서 이북의 '위안부' 할머니 초청사업을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일반학우들을 중심으로 한 자주

교류투쟁에 흐름에서 정치적인 사안까지 상승시켜갈 투쟁계획을 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시기는 대중적인 자주교류의 흐름을 창출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위별로 전민특위를 구성할 것에 대한 활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조국통일투쟁의 시기별 흐름

1시기(4월 22일까지)

공동의장단 회의를 성사시키면서 올한해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교양과 단위별 계획 세우기

4월 9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연석회의

4월 21일 범청학련 산하 전여대협-이북여성학생대표단-해외여학생회 공동실행위원회의(가안)

2시기(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주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

지역과 대학별 흐름창출

5월 10일 각 지역 여대협 출범식을 기점으로 공동축전 및 성명 교환

3시기(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반미 월간 선포

주한미군철거투쟁을 전면화시켜내는 시기

5. 18 20주년 남북해외 공동 집회

5월 22일 반미의 날

5월 26-28일 전여대협 이북여성학생대표단, 해외여학생대표단의 전민특위 출범식

*대중투쟁의 시기별 흐름표

	4월	22-23일	26일	28-29일	5월 1일	4-7일	18일	26-28일
	전여대협총회 집중수요집회 학생법정 노동자대투쟁 봄농활 남북해외공동집회 전여대협출범식							
주한미군철거투쟁	학내의식흐름장악, 반미실천활동			금요일회, 금요일선전전환성화		기원학교, 기원대원모집과 교양활동, 지존탐방단 활동		전민특위의 건설의 흐름으로..
일분군'위란부'문제 해결투쟁	학내의식회와 수요집회		의조직화집중기간		위안구해결소모임구성과 활동, 지속적인 수요집회·수요선전전환			
여성노동자투쟁	여성노조방문과 투쟁하는 사업장 물색작업, 학내의식회작업과 노동지기활동결합				투쟁하는 사업장 방문, 여학우취업·실업실태조사			
여성농민투쟁	여성농민반원모집		여성농민에 관한 선전의식화기간(교양학교, 분반원교양)			후속작업		
성폭력반대투쟁	의식화사업, 신고문화안착화		실사조사를 위한 설문사업과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의 간담회			학교당국에 요구안제출과 답변요구 이후 대책위구성으로의 흐름..		
매매추방대투쟁	의식화사업과 한소리회 방문							
조국통일투쟁	공공의장단 회의와 올해 조통사업교양, 단위별 일년계획세우기		자주교류활성화와 지역·대학별흐름창출				주한미군철거투쟁의 전면화	

*핵심투쟁과제

- 4월 21일 : 범청학련산하 전여대협-이북여대생대표단-해외여학생회 공동의장단 회의
- 4월 22-23일 : 전여대협 총회
- 4월 26일 : 남북해외 3자연대 전국동시다발 수요집회
- 4월 28-29일 : 2000년 학생전범법정
- 5월 1일 : 노동자대투쟁
- 5월 4-7일 : 봄농활
- 5월 18일 : 5.18 20주년 남북 해외공동집회
- 5월 26-28일 : 전여대협 출범식(전민특위, 공동대책위발족식)